



메인 세션

테마 1
'관광 진흥'

참가지방정부	중 국 : 허난성, 산시성, 청두시, 뤼양시, 쑤저우시, 린이시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한 국 : 충청남도, 경상북도 일 본 : 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미에현, 와카야마현, 돗토리현, 시마네현, 가가와현, 고치현, 구마모토현, 나라현, 다카야마시, 나라시, 가시하라시, 고세시, 가쓰라기시, 미야케초, 아스카무라, 고료초, 시모이치초
관계기관 등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주일사무소, 동아시아·아세안 경제연구센터(ERIA),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국제협력기구(JICA),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간사이 광역연합, 긴키대학, 기즈가와시
강사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강사 스피치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지방정부가 관광시책을 펼치는 것은 관광객을 증가시켜 지역이 활기를 띠게 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역의 활성화에는 5가지 단계가 있다. 지명도, 집객, 매출, 이익의 각 증가가 첫 4단계다. 관광을 하는 기업이라면 이것만으로 충분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는 그 위에 있는 5번째 증가를 지향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것이 지역내 경제순환 확대이며 다시 말하면 지소지산이다. 지역에서는 관광객의 소비를 가능한 한 지역에서 생산된 것

을 사용하게 한다. 지역 상품의 사용이 확대되면 될수록 지역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증가하므로 여기까지 하여야 비로소 지역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관광 현황을 총 숙박객수로 보면 외국으로부터의 관광객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관광객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며 중국은 아직 멀었으나 이윽고 같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도 경제가 발전한 30~40년 후에는 같은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는 인구가 약 23억에 이르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생활하는 대규모 마켓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관광진흥에 있어 동아시아는 매우 유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의 데이터에서는 방일 관광객은 중국과 한국이 많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뒤를 이었다. 태국의 관광객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의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 국내 관광객의 숙박처를 도도부현 별로 보면 오사카나 교토가 근린에 위치하기도 하여 나라현은 가장 일본인 숙박객수가 적다. 그러나 나라현에 숙박하는 외국인 관광객수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미처 모르는 나라현의 장점, 조용한 아침거리나 저녁노을의 아름다움 등 숙박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가치가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다고 본다.

오늘 참가하신 일본의 각 지방정부를 비롯하여 일본의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와 같은 10대 지역에서는 그 증가율이 폭발적이어서 이제 도쿄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과거 8년간 3배로 증가한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일본으로의 외국인 관광객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앞으로 일본관광의 과제로는 증가하는 관광객들에게 얼마나 좋은 관광내용을 제공할지 또 얼마나 그러한 것을 홍보하여 결과를 낼지 하는 것이다.

홋카이도 오타루시의 인구는 과거 30년간 18만명에서 12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인구증가나 지역의 활성화로 좀처럼 이어지지 않는 현황이 있다. 한편 오타루에서 50킬로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매우 유명한 스키 리조트지인 니세코에서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마을 특산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등 지역내 경제순환 확대를 명확히 의식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관광지가 지속가능하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점이 있다. 먼저 관광지로서 명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관광객이 반복하여 찾을 수 있는 목적과 이유를 가질 것, 그리고 오래 머무르고 싶어지는 시간소비 메뉴를 해마다 증가시킬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지소지산을 추진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관광은 확실하게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관계기관 프레젠테이션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주일사무소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을 위한 시책을 추진

동아시아는 이제 국제관광의 성장 엔진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 내의 각지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일본은 명확한 비전과 강한 리더십 아래 정부와 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편 환경오염의 심각화 등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행해야 할 과제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지표에 기초하여 세계 27지점의 관광지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그 네트워크화를 추진하는 INSTO(The UNWTO International Network of Sustainable Tourism Observatories)에 착수하고 있다.

사례 소개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관광진흥에 있어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인도네시아에서는 핸드폰 보유대수가 인구를 능가하고 있어 디지털 테크놀러지의 활용은 관광진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서자바주는 YouTube 등을 활용한 디지털 프로모션과 디지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외에 관광산업에서의 문제점 특정과 니즈의 파악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호텔이 아닌 일반가정에 숙박하여 지역민들과의 문화교류를 즐기는 등 지역커뮤니티를 둘러싼 인클루시브 투어리즘에도 착수하고 있다.



중국 • 청두시

아름답고 생활하기 좋은 가든시티를 지향하여 그린로드(녹도)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

청두시에서는 도로 이용자의 쾌적성과 도시 전체 공간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그린로드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간의 간선도로, 도시부의 보조간선도로, 커뮤니티 내의 도로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완성 후에는 시의 거의 전역을 커버할 예정이다.

그린로드 네트워크는 환경 시스템의 보호, 슬로교통과 관광·레저활동, 각종 문화 행사의 개최 등을 촉진시켜 재해시의 긴급 피난장소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선형 모델지구에서는 대형 그린파크와 서비스 장소의 정비를 예정하고 있어 경관향상을 더 한층 발전시킴과 동시에 주민과 관광객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해 갈 것이다.

의견교환내용

1.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지역의 매력향상과 인재육성

(1) 지역의 매력향상과 새로운 관광 콘텐츠의 발굴·창출

- 관광객을 증가시켜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방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충청남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한국·충청남도)
- 뤼양시는 중국의 고도(古都)로서 문화적 요소를 전면에 내 건 관광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용문석굴 등의 구유적을 보유하는 특징을 살려 수·당 뤼양성 국가역사문화공원을 건설하는 등 중요한 역사자원을 관광자원으로 변모시키는 시책에 주력하고 있다. 도시의 문화·문명과 에코문명과의 융화, 현대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과의 융화를 촉진시켜 고도의 새로운 모습을 이끌어내 가고자 한다. (중국·뤼양시)
- 서자바주에서는 새로운 관광명소와 콘텐츠를 매년 개발, 창출할 것을 미션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3년 전에 플로팅 마켓을 만들고 현재는 반둥 시내에 아시아 아프리카 마을을 건설중이다.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콘텐츠와 목적지를 창출함으로써 재방문객을 획득하려고 한다. (인도네시아·서자바주)
- 후쿠시마현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후 일시적으로는 관광객(총) 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2018년에는 지진 전의 약 98.5%까지 회복하였다.
후쿠시마현은 웅대한 자연의 혜택을 입고 있어 수많은 등산과 단풍명소가 있고 농업 등도 활발하여 후쿠시마 고유의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일본주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무진전쟁의 무대로서 아이즈 와카마츠나 츠루가조 등 역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명소, 시설도 많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체와 협력하여 효과적인 시책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후쿠시마의 관광진흥 나아가서는 부흥으로 연결시켜 가고자 한다. (일본·후쿠시마현)
- 여행이나 먹거리에 돈을 쓰는 것은 행복해지려는 마음의 표출이다. 행복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것을 얼마나 관광객의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경제진흥으로 연결시켜 갈지가 과제다. 국민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년 후의 고령자가 종교지식과 종교건축에 접하는 종교 투어리즘이 탄생하여 행복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관광의 형태라고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서자바주)

(2)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어프로치, 인클루시브 투어리즘

- 행복의 형태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여 리서치를 통해 각각의 니즈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자바주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마케팅뿐만 아니라 대상을 특정한 광고 등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어프로치를 실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서자바주)

- 인클루시브 투어리즘을 촉진하기 위해 어드바이저리 팀을 커뮤니티에 파견하여 표준적인 위생관리 방법과 숙박비에 관한 지식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전형적인 호텔에 숙박하기 보다 체험형 관광을 즐기려는 관광객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어 로컬 커뮤니티에서 지역생활을 체험함으로써 매우 감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 새롭게 발전하는 관광지 일수록 최신기술의 활용 등 시대예의 적응이 되어 있다. 노포 관광지는 거기서 배우고 그저 사적을 둘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에게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역사관광지가 될 수 있을지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모타니 강사)

(3)관광진흥을 꾀어질 인재의 육성

-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서비스의 창출, 인클루시브 투어리즘의 촉진, 관광거점의 정비, 투자유치 등의 시책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 새로운 사고와 능력을 가진 인재의 육성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 나라현)

- 반동 시내에는 관광대학이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고 수준의 대학 중 하나로 졸업생이 호텔의 스태프가 되어 일하고 있다. 또한, 관광업에 관한 학과를 설치한 고등학교도 있다. 관광은 서자바주의 중요한 산업이며 그를 위한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 (통역안내사제도의 현황에 관한 다니노 씨의 질문에 대하여)일본의 통역안내사에는 현재 전국통역안내사와 지역통역안내사 2종류의 자격이 있다. 제도 개정예 의해 이러한 자격의 보유자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가이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문호가 넓어진 한편 가이드의 내용과 지식의 레벨업 등 질적 향상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 주일사무소)

2.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대책과 전략적인 관광객 유치 촉진

(1)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대책

- 관광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에도 직면해 있다. 관광객수로 경쟁하고 있으나 얼마나 관광지의 질을 높여 갈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광을 통한 관광객의 질적 향상과 경쟁 속에서 지역의 가능성을 얼마나 발굴해 갈지가 과제라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 말라카주)

- 2018년에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은 약 700만명이었는데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수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반인 약 300만명에 머물렀다. 상호 왕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 경상북도)

- 관광객에는 2종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는 극히 일반적인 관광객이고 다른 하나는 전략적인 관광객이다. 전략적인 관광객은 한번 방문하면 다음에 올 때는 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다. 국제적 컨벤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자바주예의 투자가와 협력자가 되어 줄 사람을 증가시켜 국제관광의 추진에 노력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 서자바주)

(2) 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Event) 유치나 IR(Integrated Resort)의 개발 등 전략적인 관광객 유치 촉진

- UNWTO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에 착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MICE 유치와 IR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
- 컨벤션을 포함한 MICE의 유치 또 작금 각광을 받고 있는 IR은 모두 중요한 관광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 국제회의의 개최건수는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 참가한 각 지방정부에서도 MICE의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국제경쟁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IR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굳어져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져 가는 단계에 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개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 주일사무소)
- MICE와 IR을 불러오는 것 자체는 가능해도 그것이 지역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면과 이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IR과 컨벤션에서 소비되는 식자재를 지역 특산물로 하는지 또는 거기서 일하는 인재를 지역에서 교육하여 창출해 갈지가 중요하며 지방정부는 단순히 관광객수나 매출, 이익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경제순환이 확대될지 어떨지를 생각해야 한다. (모타니 강사)



3. 동아시아 관광진흥의 미래

(1) 지역개발과 지역의 아이덴티티의 확보

- 청두시에서 시안시까지 고속철도가 개통되어 두 도시간 교통편이 매우 좋아졌다. 또한, 도중 지점에 있는 충칭시도 그 혜택을 받아 매우 활기를 띄고 있다. 고속철도에 의해 쓰촨성 내는 물론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등 국내 각 도시로도 매우 좋은 교통환경이 정돈되어 가고 있어 교통면에서 청두시는 매우 발전이 빠른 도시로 되어 있다. (중국·청두시)
- 도시화가 진행되는 것과 지역의 아이덴티티가 희박해져 가는 것은 표리 관계에 있으며 전 세계의 지방정부에 공통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도시가 발전해 감에 따라 잃어가는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어떻게 유지하여 양립을 도모할 것일까 다른 지방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 (일본·나라시)

- 청두시에서는 가든시티의 건설에 있어 컨트리 관광 등 농촌과 교외의 진흥에도 주력하고 있다. 청두시에는 예로부터 진(진마을)도 있어, 그 역사와 유적을 활용하여 각각의 특징있는 ‘진’을 만들어간다는 계획도 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잡힌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 · 청두시)

- 경제면과 더불어 사회의 결속력,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의미에서도 관광 발전이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을 오늘 논의를 통해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 나라현)

(2)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

- UNWTO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라는 것은 특정 항목이 정해져 있고 수치화되어 있는 것인가. 또한,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지표가 있는가.

(긴키대학)

- ‘지속가능한 관광지표’에는 복수의 모델이 있으며 어느 모델이나 분야별 지표 항목을 정해 각각 기본적으로는 수치로 평가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평가자체는 관광지의 지방정부 등이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항목은 지표별로 조금 다르지만 관광객수와 경제 효과 등 주로 관광활동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환경요건으로서 수질과 공기의 오염상황을 취급하는 것이 많다.

(유엔세계관광기구 주일사무소)

- UNWTO와 국제협력기구(JICA)에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5년간 개발금융기관과 UN의 조직 또 2개국간의 원조기관에 의해 실시된 208 관광 섹터의 프로젝트를 샘플로 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SDGs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의 17개 결승지점 모두에 관광 프로젝트가 공헌하고 있고 특히 결승지점1인 빈곤박멸, 결승지점8인 일의 보람, 결승지점17인 파트너십에는 높은 공헌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SDGs는 세계 공통의 과제인데 기술과 자금, 경험이 부족한 도상국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JICA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와 협력하면서 앞으로도 도상국의 SDGs에의 도전을 지원해 갈 생각이다.

(국제협력기구)

(3)동아시아 연계의 자세

-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연계(RCEP)와 같은 지역간의 조직도 활용하여 동아시아 전체 관광객의 왕래와 교류를 돈독히 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국 · 충청남도)

- 글로벌화나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다양한 지역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게 되어 동아시아는 지금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광의 힘으로 어떻게 동아시아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본 회합이 서로 배울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공헌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일본 · 나라현)

- UNWTO의 ‘지속가능한 관광지표’ 처럼 동아시아 관광의 지표를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로서 공유할 수는 없을가. 동아시아 전체의 관광지표라고 하면 매우 규모가 거대한 이야기가 되므로 예를 들면 본 회합에 참가하는 지역의 관광 KPI를 정비하여 서로 배우기 위한 소재로 삼을 수 없을가 고려 중이다.

(일본 · 나라현)

총괄



모타니 고스케 (주)일본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있어서는 나라별로 다양한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각 국내에서도 지역별로 매우 심오한 역사와 문화가 있으며 역시 매우 긍지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와 비교하더라도 아시아에는 보다 심오하고 보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다. 오랜 역사를 통해 견지해 온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활용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은 보다 많고 보다 다양한 행복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은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행복을 주는 산업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 한계는 없다. 관광은 돈의 쟁탈전이 아니라 이른바 행복을 부여하는 일이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서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 할 것이다.

동남아시아에는 인구증가가 이어지는 나라도 많다. 풍요로워지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광지는 혼잡해지며 그 매니지먼트는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점에서는 앞으로도 선진지역인 일본, 중국, 한국에서 배웠으면 한다.

본 회합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다른 지방정부 등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부디 이 기회에 더욱 교류를 돈독히 하셔서 서로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긍지 넘치는 풍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 가셨으면 한다.

